

“‘평생학습’ 덕분에 강사 됐어요” 이주여성 ‘웃음꽃’

광산구 ‘세계 가정식 요리강사’ 양성 눈길...23명 고국 음식 알려 ‘대한민국 좋은 평생학습’ 선정...‘언어 강사’ 양성 과정 신설키로

“오늘 함께 만들 요리는 제 고향 캄보디아에서 즐겨 먹는 ‘샤크녀이 산주록’ (생강 돼지고기볶음)입니다. 향신료를 많이 쓰지 않고 덮밥과 쌀국수 등 다양한 요리 응용도 가능해 여러분도 좋아하는 ‘단골 메뉴’가 될 것 같아요”

이주 여성 A씨는 광산구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고향에서 당연하게 ‘밥’으로 챙겨 먹었던 고향 음식 만드는 법부터 음식과 관련한 문화 등을 주민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고향에서 가족과 먹던 음식을 한국 분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만들어 보게 될 줄 생각도 못 했어요.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신기하고 즐겁고 행복해요”

광주 광산구의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 양성 과정’이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진출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산구는 대표적 ‘다문화 도시’로 2023년 말 통계에 따르면 광주시 외국인 주민 중 56.9%가 광산구에 살고 있다.

광산구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율도 6%대로 지역 생산과 소비 등 전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역사회 구성원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사회 적응과 취업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산구가 주목한 것은 평생교육이다. 그동안 그림책 지도사, 보드게임 지도사, 정리수납, 바리스타 등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컨설팅 등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온 광산구는 지난해부터 ‘교육 사각지대 지원사업’의 하나로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주여성이 전문성을 길러 자국 대표요리를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하는 장을 만드는 게 핵심 목표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전문가와 함께 조리법을 연구하고, 실습하며 역량을 기른 23명이 첫 광산구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 자격을 얻고 활동 중이다.

이들은 우즈베키스탄 ‘오쉬(플로프)’, 베트남 ‘퍼싸오(볶음쌀국수)’, 브라질 ‘가소호 쟁찌(브라질 핫도그)’ 등 다양한 메뉴를 들고 요리 교실, 강의 시연 등을 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요리 강사로 거듭난 한 이주여성은 “처음엔 긴장도 하고, 떨기도 했지만 수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무엇보다 수업에 참여한 주민들 반응이 좋고, 음식을 나누며 고향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줘서 행복했다. 더 다양한 요리로 많은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리 강사 이주여성도 “쿠��클래스를 운영하며 단순히 음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화도 나누면서 친구가 되는 기분을 느꼈다”며 “나도 모르게 한국어 실력도 점점 느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산구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 과정은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최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선정 정책’으로 선정될 정도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 주관 202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평생학습도시 특성화 부문, 전국 지자체 중 6개소 선정) 공모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광산구는 올해에는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와 더불어 세계 언어 강사 양성 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이주여성이 전문적인 언어 교수법을 배워 평생



광주 광산구가 신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진행하는 ‘세계 가정식 요리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지역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각각의 대표 음식을 조리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학습센터 등 평생교육 운영기관과 연계해 모국어를 교육하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주여성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보완·개선하고 신규프로그램을 운영해 요리·언어 등 강사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활발히 활동하도록 뒷받침하겠다”면서 “광산의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이 기술과 지식 습득뿐 아니라 사회 정착,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하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민·관협력 지역상생 나선다

평동체육관·평동농협·평동행정복지센터 MOU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7일 평동농협, 평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민 건강 증진과 평동체육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도시공사 문완규 경영본부장, 평동농협 최삼규 조합장, 평동행정복지센터 김진학 동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역민 건강증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참여 ▲공공지원 공유서비스 제공을 통한 평동체육관 활성화 방안 강구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지역민, 산단 근로자 등이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공동협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평동체육관을 활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 등 지역민 복지 향상도 기대된다는 게 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에게 평동체육관을 활용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문완규(왼쪽 첫번째) 경영본부장이 지난 17일 평동농협 최삼규 조합장, 평동행정복지센터 김진학 동장과 ‘민·관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조직혁신 시책 성과

신임 이사장 취임 후 조직 체질 개선 성공...민원 대폭 감소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추진 중인 조직혁신 시책들이 성과를 내면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임영일 이사장 취임 이후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사업은 ▲조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획기적 정신 변화 프로그램 ▲신바람 나는 공단 만들기 ▲직원 직무역량 강화 ▲경제양정 강화 등 기강 확립 ▲수의계약 한도액 하향조정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생활폐기물 1일 수거제 정착 등이다.

이 같은 내부적인 자정 노력은 주민 민원 만족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민원처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설 연휴 민원은 전년도와 비교해 76%나 감소했다. 올 4월 현재도 전년 대비 민원 건수가 37%(678건 → 432건)나 감소했다.

임영일 이사장은 “사회공헌을 위한 유관기관 MOU체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 45001) 등의 국제 인증을 획득하는 등 공단 전체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공단 직원이 연루된 비리에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직접 나서 해당 직원을 고발하는 등 각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소촌 건널목 지하차도 우회도로 개통

광주 광산구는 소촌 건널목 지하차도(입체화 도로) 기능을 보완하고, 인근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회도로 공사를 완료·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2021년 왕복 2차선으로 개통한 소촌 건널목 지하차도는 상무대로와 신흥동, 송정도서관 등을 연결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철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

조로 설계돼 지하차도 연결 마을 화재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총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길이 317m, 폭 6~9m로 소촌 건널목 입체화 우회도로 공사를 진행했다.

광산구는 이번 우회도로 개통으로 교통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공직자 소통·혁신 워크숍 추진

광주 광산구는 “지난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6기수에 걸쳐 신안에서 공직자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워크숍은 9년 만에 실시하는 전 직원 워크숍으로, 상생과 혁신이라는 민선 8기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소통·협업 교육을 실시하고 신안의 새채를 활용한 혁신적 정책시례를 둘러보며

구정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

워크숍 1일차에는 직급별 3개 분반으로 나눠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세대별 팀별 과제를 해결하는 협업·소통 교육을 진행한다. 2일차는 퍼플섬, 1004뮤지엄파크, 분재정원 등 신안의 우수정책 사례를 4개조로 나눠 둘러보는 일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